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올 한해 성과

도민 일상회복·따뜻한 전북 구현

전북도는 올 한해 저소득·위기가구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계층별·세대별로 두터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했고, 감염병 대응 역량 집중,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과 도민 신체·마음건강 지원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 일상회복을 앞당겨 따뜻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먼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평가 총 9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9년 연속 전국 1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6년 연속 우수기관을 유지했다.

또한, 새정부 건축재정 등 국가재정 확보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도 2022년 복지여성보건분야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618억원(5.8%)이 증액된 175개 사업에 239,264억원이 확보되어 도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신규사업은 당초 정부예산에 포함

되지 않았지만 막바지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편성된 용성전승관 컨설팅사업(5억원), 사회보험 공동청사 시범운영(2억원)을 포함해 경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기능강화(30억), 화장료 기능보강(25.1억),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3.8억) 등 총 22개 사업에 188억원을 확보했고, 계속사업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9억원)을 비롯하여 생계급여, 기초

보장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기존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이 강화되었다.

아동보호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대 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보호 관련기관을 확충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노후준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했으며, 취약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확대(3만3,935명)와 지난 9월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개소로 양질의 노인돌봄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장애인 연금지급(2022,000명), 맞춤형 일자리 제공(2,784명)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였고, 자립지원사업 117팀 구성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한 경쟁 끝에 국가기관 장애인고용 교육연수원을 옛 자립지원센터로 유치해 향후 장애인고용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와 장애인 근로자의 치유, 휴양, 문화향유시설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 중점필수 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 확충, 그리고 도민의 신체·마음건강도 함께 보살펴줄 의료취약지 보건 전문인력 지원 및 전북광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9년 연속 전국 1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사회서비스원 운영 감염병 대응 치료병상 확충·통합 재활병원 건립

연금 지원 등 총 153개 사업에 239,907억원을 확보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삶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다 살뜰히 살피고 촘촘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비롯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두터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전북형 기초생활

지원을 강화했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했고, 여성이 마음 편히 살피고 촘촘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비롯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두터운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6만5,442명) 및 단계적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했고, 고품격 대비

인력/시설 등 기반을 확충하고, 재난·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했다.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전체 시군 확대, 건강검진 지원(18만6,566명) 등으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운영(7개소), 마음안심서비스 운영(5대) 등으로 도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88.8%의 접종률을 보였고 인문체계를 통해 올바른 방역 수칙 등을 홍보하여 도민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충분한 치료병상 확충으로 도민의 적절한 치료여건을 조성했다.

김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2023년도 보건·복지 정책분야에 보완 반영하여 민선8기의 목표인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 전북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강설 피해 대책 마련해야" 군산시의회, 집행부와 간담회

30cm가량의 폭설이 내려 건물 지붕 및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원들이 각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동참하고,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상호 소통하는 등 등분사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28~29일간 또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대비, 최근 군산시의회 의장과 부시장 등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강설 피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영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상가 앞 및 이면도로 시설을 신속히 해 소상공인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눈 치우기를 하다가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이 어렵다는 제설차량 운행자의 불편사항을 들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계를 갖추어 제설작업도 빨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은 "폭설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든, 대응이 미미하다는 혐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제설 장비를 임차해 구급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적극 대응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시에서 대형 장비를 직접 구비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의장은 "주요 도로를 우선으로 제설했다고 하지만 주요 도로조차 제설이 안되어있다. 매뉴얼에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면 및 인도 제설작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놓아야 하며, 면 단위·동 단위를 구분하여 농촌과 도시 지역을 구분하여 제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이윽고 28~29일간 강설이 예보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지역 숙원사업, 국회단체서 대거 반영돼"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 국가예산 1조1254억 확보 견인

군산 숙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신영대 의원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도 전북도, 군산시의 공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54억 원의 예산 확보를 견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조선업인력양성사업도 증액을 이뤄냄에 따라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융복합 미래산업분야 39건 1,307억원,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분야 14건 261억원, 환경·안전·복지분야에 88건 3,527억원, 농업·해양 분야 59건 1,491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17건 118억원, 주민편익 및 도시재생 분야 42건 765억원, 새만금 SOC분야 7건 3,785억원 등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다.

역대 최대 성과의 바탕에는 신 의원이 작년 예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인적네트워크와 철저한 사전준비와 주효했다는 평이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정부안 편성 시기부터 세종시를 방문해 각 부처를 돌며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군산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요사업들은 정부안으로 반영시켰다. 이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예결위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재정부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국회의 단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켰다.

신 의원은 "건축재정 속의 전북과 군산 예산 증액은 전북 협치의 빛나는 성과"라며 "군산 숙원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군산의 대표 일꾼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26일 서울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시도지사협의회 회담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철우 회장(경북도지사), 김관영 부회장(전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맞손을 잡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 현안 요청

김관영 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국가예산 9조원 개박을 알리는 브리핑 다음 날 곧장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

26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광화문빌딩 12층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회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감사인 이상우 대전시장 등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대상 선정, △광역교통법 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을 건의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는 완주수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 2단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등 3개소로서 1조원대 사업비로 3개 산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사업은 국토부의 종합시험센터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예타 대상사업 신청단계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77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원 가량이다.

광역교통법 개정사업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4조2,060억원 사업비로 동서축 교류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계획이며, 이와 관련 2023년 무주성주 구간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건의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으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의 우선 배려를 요청하며 전북의 지역특화분야인 자선운동공원,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의 전북도 우선배치를 건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고, 오늘을 계기로 국가예산 확보 성과에 이어, 전북의 현안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26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된 2022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22년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을 평가해, '2022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했다.

이날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감 준비 단계부터 국감 기간 동안 정책적 심층도가 높고 평가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과 문제 제기를 통한 환경에 대한 여론 형성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는 모습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생산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전체의 10%만이 폐기처분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魚道)의 60% 이상이 개보수 대상인 점을 비롯해 해양 불법투기 문제,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예산 폭증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행사,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6일 고창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을 방문해 운영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전체험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직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창소방서에서 운영중인 소방안전체험교실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과 위험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에 준공했다.

심폐소생술 체험, 119신고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소화설비 작동원리, 완강

기 체험, 화재대피 미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난이도를 조절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소방안전체험교실 내부 교육시설 곳곳을 두루 살펴보고 심폐소생술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지며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고창소방서는 전라북도 최초로 군 단위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생을 비롯한 재난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